

## 그림으로 보는 인력실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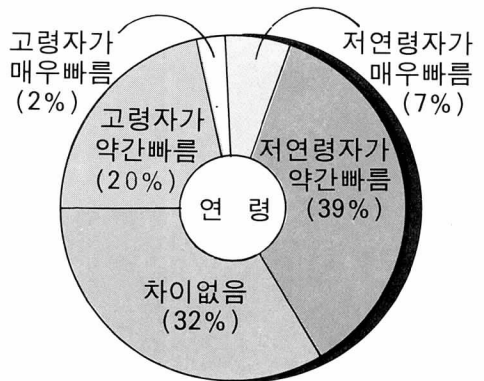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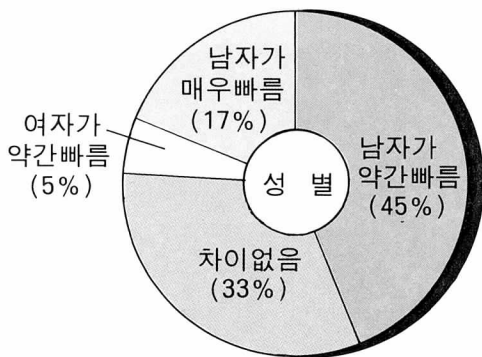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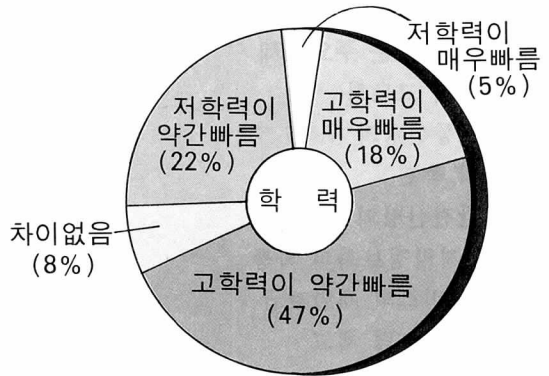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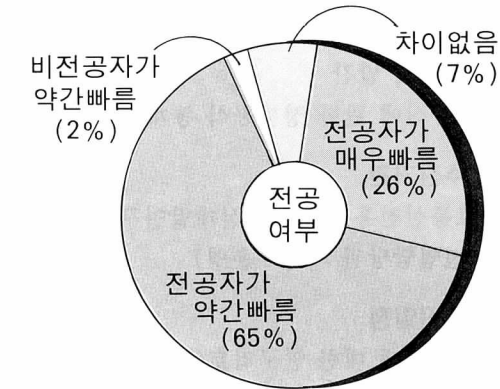
협회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정보통신관련 업체 55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인력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3월 이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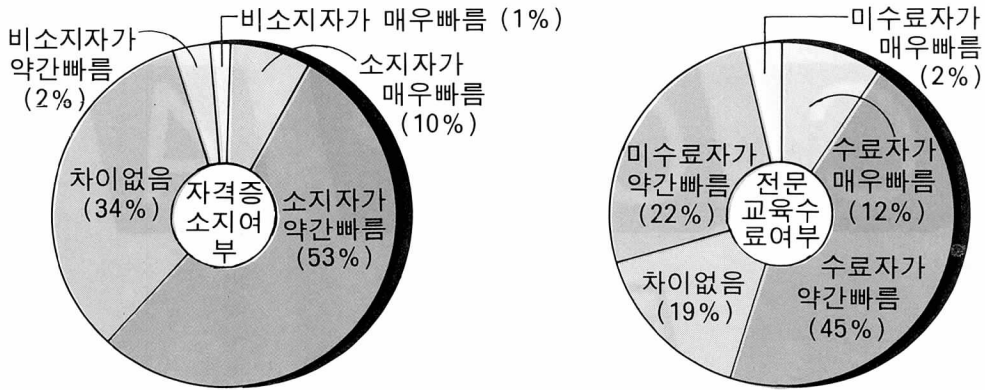
본지는 3월호 부터 각 기업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 …… 편집자 註

### I. 기술숙련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

기술숙련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전공여부에 대해서는 총 248개 응답업체중 91%인 227개사가 전공이수자가

비전공자 보다 숙련도가 약간(65%) 또는 매우빠르다(26%)고 답해 전공여부가 기술숙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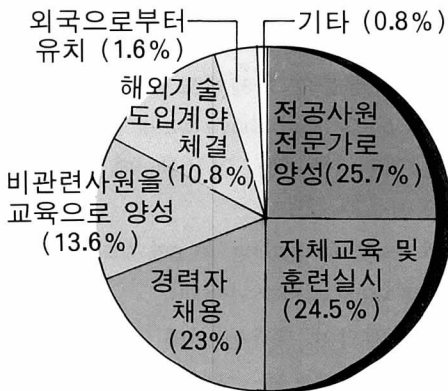
〈그림 1〉 기술숙련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

학력면에서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 보다 약간 또는 매우빠르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으며, 성별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빠르다는 62%, 차이없다가 33%인데 비해 여성이 빠르다는 5%에 불과 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저연령자가 고령자 보다 빠르다는 비율이 46%, 그 반대가 22%, 별차이없다는 32%로 연령이 기술숙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술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서는 63%가 자격증 소지자가 더 빠르다고 답한 반면 37%가 별차이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전문교육훈련 이수여부 역시 이수자가 빠르다는 응답이 57%인 반면 그렇지 않다(24%)와 별차이가 없다(19%)가 43%로 나타나 자격제도와 전문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II.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방안



〈그림 2〉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관련학과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법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에 응한 245개사가 하나이상 응답한 내용을 보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학과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업체는 156개사(64%), 기존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업체는 149개사(61%), 그리고 경력자를 채용하는 업체는 140개사(5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2〉는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 응답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